

### 노숙자들 농사지어 이웃돕기 3년째

“직접 농사지는 쌀로 저희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으니 우리는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11월 12일 일년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쌀로 동래구 관내 소년소녀가장, 독거 노인 세대를 도운 부산보현의 집(원장 이기표) 노숙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나눔 수확을 오히려 기뻐하는 노숙자들. ‘없는 사람 사정은 없는 사람이 안다’는 옛말처럼 실직과 노숙의 아픔이 있었기에 어려운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됐고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됐다. 노숙자들 5-6명이 윤번제로 돌아가며 3천 평의 논을 고르고, 모내기를 하고 비료를 주며 수확한 쌀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보시한 것은 올

## “더 어려운 이웃 도울 수 있어 우린 복받은 사람들이죠”

130여 포대까지 보시한 적도 있었지만 올해는 잦은 비로 인한 병충해로 수확이 좋지 않아 60포대에 그쳤다. 이 밖에도 입소자들은 매년 직접 수확한 배추, 무 등으로 김장 김치를 담가 독거 노인 세대와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부산 '보현의 집' 노숙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직접 수확한 백미 60포대를 트럭에 싣고 있다.

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가진 것 비록 적어오 나누면서 살아가니 부자가 된 것 같다”고 밝

힌 한 입소자는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ews.com

### 부산 동래구 60세대에 백미 전달

해로 3년째다. 실직 노숙자들의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동도사 경내지에서 농사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쌀, 배추 등의 농작물을 이웃에게 보시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는 수민동, 사직 1동, 명장동을 비롯 총 14개동에 거주하는 60세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20kg 백미 60포대를 전달했다. 벼농사가 풍년이었던 지난해에는

부산보현의 집에 입소해 있는 실직 노숙자들의 보시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얼마 전 태풍 메미로 집을 잃은 가덕도 장애인들의 집을 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태풍 피해 복구 현장 곳곳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이 밖에도 매달 부산보현의 집 인근에 있는 황전양로원을 찾아 노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후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송언합창단이 재해민을 돕기 위해 음악회를 개최했다.

### 재해민돕기 수행선법가의 밤

교성곡 '심우도' 첫 발표, 수익·난방비 등 지원

####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계) 송언합창단은 11월 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재해민돕기 수행선법가의 밤' 음악회를 개최했다.

재해민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영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창작 교성곡 '심우도'가 처음 발표됐다. 마음의 본성자리를 밝혀가는 불교 수행과정은 10단계로 묘사한 '심우도'는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 큰스님의 계승을 박상준씨가 4부 합창 관현악곡으로 작

곡한 것이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 8백96만원을 재해민들에게 난방연료비와 김장김치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 치매노인보호센터 열어

#### 낮시간중 안전하게 보호

개급사회복지관(관장 박용하)은 최근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를 열고 노인복지를 본격화했다. 복지법인 불국토가 2004년 주력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선정되자 불국토 산하 복지법인 개급복지관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한층 더 다양화하기 위해 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한 것이다.

경중 치매, 노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낮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치매노인 보호센터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의료서비스, 정서서비스, 취미활동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51)893-5034 천미희 기자

#### 동백갤러리 부산명소로

#### 스님 서화·다기 등 전시

최근 바다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카페와 식당으로 유명한 부산 일광의 바닷가에 문을 연 <동백 갤러리>는 경찰공무원 심진택씨가 수집한 스님들의 서화를 선보여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심거사는 부산 감로사 부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사찰을 방문했다가 보경스님과 인연이 맺고 이후 스님의 마을 상좌가 됐다. 심거사 부부는 “훌륭하신 스님들의 수행력과 가르침을 느낄 수 있는 서화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바다 내음과 선(禪)의 향기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동백갤러리는 스님들의 서화와 함께 서양화와 조각 다기 등 다양한 소품도 전시하고 있다. (051)727-1953 천미희 기자

### 미륵암 대웅전 강제이전 再燃

고신대 측, “1년 유예기간 경과” 철거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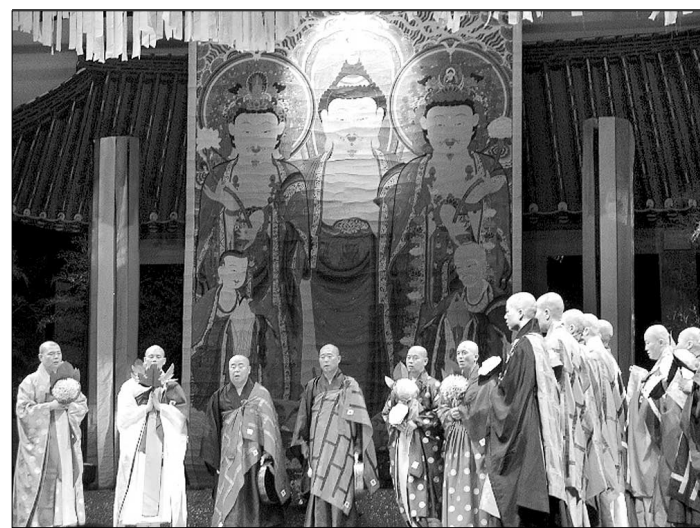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고신대에 의해 요사채가 강제 철거되었던 미륵암(주지혜정스님)의 대웅전 철거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미륵암 사태는 80년 고신대가 미륵암을 포함한 주변 7만 4천평을 매입해 이전한 후 캠퍼스 확장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미륵암은 74년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다. 토지매매 계약서만 있을 뿐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던 미륵암은 95년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강제 철거당했다. 그 결과 미륵암은 지난해 11월 대웅전을 제외한 요사채와 화장실이 완전한 철거됐다. 이후 미륵암은 남아있는 대웅전에서 예불과 법회를 진행해오며 사실상 종교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

근 고신대측이 ‘1년간의 철거 유예기간이 지났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하면서 신도들은 또 다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륵암의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미륵암 철거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남 장로)와 미륵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각스님)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은 10월 27일과 11월 4일 두 차례 만나 미륵암 철거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추후 대표자 만남을 통한 대화를 계속할 방침이다.

미륵암 관계자는 “철거가 합법적이겠지만 미륵암이 부지를 산 것 또한 분명하다”며 “종교 재단인 학교가 타종교의 시설물을 강제 철거한다면 종교적·도덕적 분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벽화와 감로탱화 속 영산자법을 재현한 '나르비나열반' 공연이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선보였다.

### 불화·탱화 속 직법... 나르비나 공연

김향금 교수, 보살춤·조전춤 등 5가지 선보

400~500년 전 그려진 불화와 탱화를 바탕으로 한 전통무용이 무대에 올려져 관심을 끌었다.

경남 창원대학교 무용학과 김향금 교수는 11월 11일 오후 창원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탱화 속의 영산자법을 재현한 '나르비나열반'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영산자법이란 제례의식인 49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불교의식으로 석가 영취산에서 행한 법회 '영산회상'을 재현한 '영산재(靈山齋)'를 말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벽화와 감로탱화에 보이는 승무복장의 보살춤, 하

얀 긴수건을 들고 추는 춤, 불자를 들고 추는 조전춤, 등불춤, 시건춤 등 5가지의 무용만 선보여 선보였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각필악보와 신라의 고문서 '화엄경사경조성기(華嚴經寫經造成記)', 고려시대 불화, 조선시대 감로탱화 속에 있는 의식절차와 복식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 고려 불교음악과 조선복식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수는 “이번 공연은 한국불교 사상의 내재된 힘과 외적인 깨우침을 향한 몸짓이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진주 장애인종합복지관

#### 27일 개관, 재활사업 추진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현종이)이 11월 27일 개관식을 갖고 지역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게 된다. 지난 8월 7일 합천 해인사가 진주시로부터 위탁받은 복지관은 상담지도와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재가장애인복지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진주시 상대동 일대 1천여 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919평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 어린이 재활교실로 운영되며 지상 2층은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등의 장애인 재활시설로 운영된다. 또 지상 3층에는 컴퓨터교육실, 점자도서관 등이 마련돼 있다.

관장 현종 스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겠다”며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전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잠재능력 개발과 장애인 자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055)763-6677 이동혁 기자

#### 김달진문학제 열려

#### 노인구연대회 등 행사

불교문학계를 대표하는 월하(月下) 김달진(金達鎭.1907-1989년) 문학제가 11월 8일과 9일 경남 진해시 일원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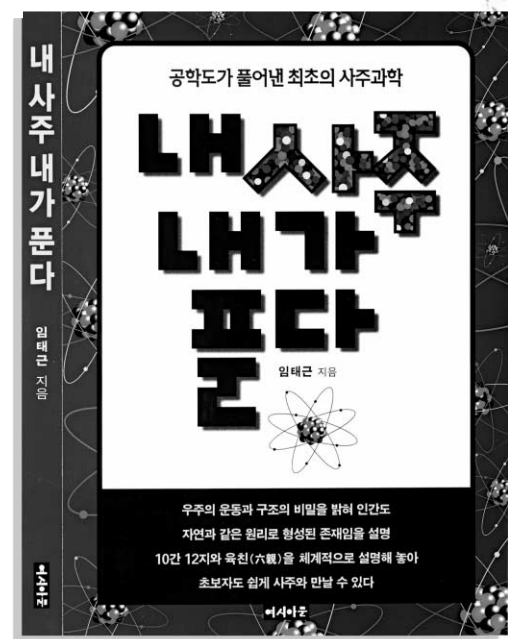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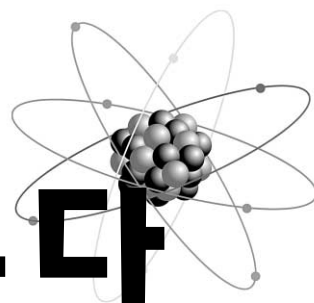
올해로 8회 짝을 맞는 김달진문학제는 첫날인 8일 태백동 시민회관에서 품물놀이로 시작으로 지역 인사와 문인들의 화창시절 편지글을 모은 옛 편지글 전시회와 옛날이야기, 창, 민속무용 등 노인구연대회로 진행됐다.

둘째 날인 9일은 김달진 생가 방문과 월하 백일장이 열렸다. 문인들과 주민들이 소사동에 위치한 김달진 생가를 방문, 추모와 문화적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일반부로 나눠 시와 시조를 짓는 월하 백일장을 시민회관 광장에서 개최했다.

전국 문인들의 축제이자 학생, 주민들의 축제로 자리잡은 김달진 문학제는 김달진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시인 시낭송 페스티벌도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천미희 기자

서울대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 내사주 내가 본다



10千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甲木: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 乙木: 옆으로도 퍼지는 힘
- 丙火: 밝게 빛나는 광선
- 丁火: 조용히 타오르는 불
- 戊土: 광활하고 거친 대지
- 己土: 부드럽고 낮은 땅
- 庚金: 거친 원광석
- 辛金: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 壬水: 시원하게 흐르는 물
- 癸水: 이슬 같은 생명수
- 寅木: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 卯木: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 辰土: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 巳火: 화려하고 번성할 도심지
- 午火: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 未土: 문화의 산물을 저장 및 증제하는 장소
- 申金: 물이 생긋는 구획된 도시
- 酉金: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 戌土: 낙엽 지고 매마른 땅
- 亥水: 생명이 숨쉬는 얇은 바다
- 子水: 고요하고 깊은 바다

- 부시 美 대통령과 남북 정치인 3인의 運은? (실전풀이편에 소개)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이 책은 자연의 순환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고 맹장(木火) 과 수축(金水)의 관점에서 공와용신(中和用神)을 설정하여 독자 스스로 운명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대에 걸쳐 진행되는 대아드라마입니다.

임태근 지음 / 466쪽 / 336면 / 값 12,000원